

## 2022년 8월 28일 “예수님의 비유(11) 바리새인과 세리”(눅 18:9-14)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에게는 합당한 성품과 안목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리가 구한 주님의 자비입니다.

### [1] 바리새인과 세리 - 배경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높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신흥 경건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치열한 노력은 급기야 문자적, 형식적 판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진의를 잃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 쪽에 붙어서 동족들에게서 과한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추구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반민족적 행태를 부린 세리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2] 두 사람의 유사점과 상이점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두 사람의 다른 점은 기도의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11-12 절). 더하여 남을 무시하며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교만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기만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마 23:23).

예수님은 진리를 안다 하면서 남보다 우월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하십니다(마 23 장 참고). 반면, 세리는 사회적으로 혐오와 분리를 당하고 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고 통회하며(13 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 [3] 주님의 자비하심

세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1) 자기에게도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자신의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어합니다.
- (2) 이것이 자기 의와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가능케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를 갈구합니다.

‘자비 mercy’의 의미는 실질적입니다. 자력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의 태도와 성품을 주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답게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 주길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했지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우선시되어 자비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맺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리의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의 삶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깊이 의탁하여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2. 나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면에서 영적파산을 선언하며 자비를 구합니까?